

벤처 열풍의 정치사회적 함의

이 상 철*

目 次

- | | |
|----------------|--------------|
| I. 머리말 | 3. 여당과 야당 |
| II. 계급구조의 변화 | IV. 이데올로기 효과 |
| 1. 벤처기업 창업 | 1. 황금신전 |
| 2. 스톡옵션 | 2. 착각 속의 자유 |
| 3. 20 대 80의 사회 | 3. 새로움의 신화 |
| III. 정치지형의 변화 | 4. 기술승배 |
| 1. 재벌과 중소기업 | 5. 지식의 사유화 |
| 2. 정부의 벤처정책 | V.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사회에는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3월까지 벤처 열풍이 불어왔다. 열풍의 증상은 다음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첫째, 코스닥시장이 급성장하고 거품논의가 일었다. 열풍은 무엇보다도 코스닥에 자금이 집중되고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등록기업 시가총액은 98년 말 8조원에서 99년 말 1백7조원, 이듬해 3월 15일 1백29조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벤처기업의 주가는 더욱 상승하였다. 99년 한해 동안 코스닥 주가지수는 3.4배 상승한 반면, 10월 이후 벤처기업의 주가지수 상승은 코스닥지수의 2-3배 수준이었다. 정보통신기업도 벤처기업 못지 않게 주가가 상승하였다. 코스닥시장의 매매회전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미국 나스닥보다 9배, 일본증시보다 15배 높다(시사저널, 2000a: 70-77).

그 와중에 거품·과열 논쟁이 벌어졌고 코스닥 주가는 급등락했다. 한파가 불면서 2000년 4월 이후에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돈 가뭄이 생기고 있다. 투자 건수와 금액은 축소되었다(매경ECONOMY, 2000b). 특히 인터넷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면서 벤처기업의 무더기 도산과 경제위기론이 거론되기도 한다.

둘째, 벤처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는 양적으로는 세계 2위의 벤처대국이 되었다. 중

* 濟州大學校 社會學科 教授

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 수는 98년 말 2,000여 개, 99년 말 4,900여 개, 2000년 3월 말 6,000여 개, 7월 말 7,700여 개다. 벤처위기가 나뉜 4월부터도 4개월간 1,700여 개가 늘었다. 종사자는 20여만 명이다. 2003년에는 4만여 개가 될 전망이다. 2000년 4월 이후 한파와 조정에도 불구하고 월별 벤처기업 신규등록 확인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월 283개에서 2월 340개, 3월 469개, 4월 554개, 5월 575개, 6월 649개, 7월 618개로 증가 추세에 있다. 벤처기업의 시효가 상실된 것은 아니다(중소기업청, 2000e).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 비중은 코스닥이 개시한 96년 7월 14.2%에서 99년 말 38.2%로 늘어났다. 벤처기업은 주로 인터넷, 정보통신, 반도체와 관련된 첨단기업들이다(중소기업청, 2000a). 급성장한 벤처기업의 해외진출도 늘고 있다. 2000년에는 5월까지 41건의 해외진출을 공시하고 있다. 내용도 과거의 단순한 제품수출과 전략적 제휴를 넘어서고 있다. 현지법인 단독출자, 합작투자, 지분출자 등이다(매경ECONOMY, 2000a).

이 글에서는 이러한 벤처 열풍이 갖고 있는 함의를 여러 측면에서 시작되는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벤처 열풍은 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받거나 준 것이 우선적이다. 경제적 요인이 주가 되어 벤처 열풍이 불고, 이 열풍은 또 경제적 요인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열풍이 단순히 경제적 현상이라고만 좁게 파악해서는 안 된다. 열풍은 넓은 의미의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의 벤처 열풍이 갖고 있는 함의를 특히 정치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데 벤처 열풍이 가진 함의는 그것이 초래된 배경 또는 원인을 우선 고찰해야만 제대로 파악된다. 열풍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세계 추세와 미국 신경제 현상의 영향이다. 90년대 들어 세계경제는 급변하고 있다. 급변의 배경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자본주의가 세계경제의 지배적 현상이 된 것이다. 급변의 직접 원인은 정보통신산업에서 기술개발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기술이 다양화되는 산업구조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이 변화는 미국 신경제가 대표하고 있다. 신경제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벤처 혁명이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코스닥이 나스닥에 동조하는 현상도 생겼다.

둘째는 한국의 경제상황, 즉 IMF 체제하 구조조정과 대안 모색이 배경이다.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체제는 한계에 달해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엔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취약하다. 벤처는 이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 IMF 구조조정에 따라 정리하고 법제화 등 실업과 취업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벤처는 실업대책도 된다(김정호·김완표, 1999). 그래서 한국경제의 한계와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 왔다.

셋째는 한국의 지나친 금융자본주의화와 벤처 붐이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주식 투자 인구가 급증하고, 인력의 벤처행이 급증한 것이다. IMF 체제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식 금융체제를 도입한 게 기초가 되었다(이상철, 1999: 67-69). 독일과 같은 은행 중심의

경제에서 미국처럼 주식시장을 바탕으로 경제가 운용되는 주식자본주의로 변화함으로써 이 경향을 조장한 것이다(임웅기, 2000). 정부는 차입에 의하지 않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를 선호했다. 그 결과 자금이 주식시장, 특히 벤처와 코스닥으로 집중되었다. 자금과 함께 인력도 급속히 몰리고 있다. 성공사례가 전파되면서 벤처로 전직이 많다. 신규 시장진입자도 벤처를 선호하고 있다.

요컨대 열풍은 위 세 배경에 기인하지만, 벤처에 자금이 집중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한마디로 열풍 자체는 투기이자 머니 게임(money game)이며 돈 놓고 돈 먹는 카지노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 속성을 띠고 있다. 물론 벤처기업의 긍정적 측면이 자금을 유인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열풍이 생긴 것은 벤처의 실체를 넘어서는 환상이 작용한 탓이다. 환상은 바로 '대박'의 꿈이다. 꿈은 한편 벤처가 과대포장 과대선전이 되고, 다른 한편 금융자본이 과잉 유동성을 가진 탓이다.

다음 장부터는 벤처 열풍의 함의를 계급구조, 정치지형, 이데올로기 변화를 통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계급구조의 변화

1. 벤처기업 창업

벤처 열풍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관계에 변화 단초를 조성하고 있다. 자본의 변화를 자극하고 있다.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이 재벌에서 벤처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주도권이 산업사회의 대기업 중심에서 정보사회의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이전될 수 있다. 소비자 요구는 소품종대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으로, 기업은 자금과 마케팅의 중요성에서 기업모델과 창업자 자질의 중요성으로 변하고 있다. 물론 벤처기업이 지배적이지는 않지만 변화와 분위기를 선도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및 투자 열풍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 창업 열풍

창업 열풍은 벤처기업이 한파를 맞은 2000년 4월 이후에도 식지 않고 있다. 월별 벤처기업 신규등록수는 증가 중이다. 또 창업보육센터, 대학의 창업 동아리, 대학 교수가 창업하는 실험실 벤처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고급인력이 집중된 대학은 기술개발과 벤처창업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대학이 중심이 되어 첨단 벤처기업 창업이 늘고 있다. 국내 창업보육센터는 220개 중 대

학에 90% 이상이 설립되어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의 창업성공률이 다른 곳보다 훨씬 높다. 대학 실험실 벤처는 연구 노하우와 풍부한 인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른 벤처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다. 대학 실험실에서 축적한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대학의 풍부한 인력을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직원으로 참여하는 졸업생과 연구원의 근무 만족도와 의욕도 높다. 마케팅 노하우, 자금 확보 등에 약점을 보이지만 새롭게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시사저널, 2000c: 70-71).

2) 투자 열풍

벤처기업의 금융인프라(자금조달 창구)로서는 코스닥, 벤처캐피탈, 엔젤 등 직접금융을 꼽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이들의 역할이 크다.

99년 하반기 이후 코스닥시장은 활황을 넘어 과열 상태였다.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벤처기업 증가, 시장금리의 하향안정 등으로 벤처캐피탈도 급증했다. 벤처캐피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포함한다. 대표로 창업투자회사를 보면 벤처 열풍이 생긴 후 설립이 폭발적이다. 96년 말 54개에서 97년 60개, 98년 72개, 99년 87개, 2000년 4월 22일 현재 120개로 증가해 왔다. 재벌뿐만 아니라 성공한 벤처기업도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개인 '큰손'들도 가세하고 있다(매경ECONOMY, 2000c: 66-71). 자금 지원방식도 과거의 용자 위주에서 직접투자 위주로 바뀌었다(중소기업청, 1999b). 엔젤도 많이 생겼다. 99년 9월 조사 결과 엔젤투자자의 70%가 99년부터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중소기업청, 1999c).

3) 재벌의 벤처캐피탈화 또는 벤처 지주회사화

IMF 체제에서 요구한 부채비율 200%를 맞추느라고 여유가 없었던 재벌들이 연말을 고비로 벤처 사냥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벤처 관련 투자액은 삼성그룹 4천여억원을 포함하여 3조여 원에 이른다.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 벤처기업 투자로 형태만 바뀌고 있다. 재벌들은 직접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계열사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삼성은 99년 10월 삼성벤처투자를 설립하였다. LG창업투자 등은 펀드규모를 확대하였다. 업종을 불문하고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매경ECONOMY, 2000c: 71).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은 사내 벤처캐피탈인 골든게이트를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36개 기업에 315억원을 투자하여 1,050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려 투자수익률이 348%나 된다(한국경제, 2000. 7. 12).

재벌들은 금년 하반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다. 지금처럼 재벌의 돈이 벤처기업으로 들어가면 머지않아 상당수 벤처기업들이 재벌 수중에 넘어갈 수 있다. 유·무상 증자로 창업대표의 지분이 크게 낮아진 벤처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취약하다.

2000년 4월 이후 벤처에 자금난이 생기고, 인수합병 시장에 벤처 매물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대기업의 온라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반기엔 투자가 집중될 조짐이다. 오프라인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기업 이미지 개선, 단기간에 수익모델 창출, 자본이득, 전략적 제휴에 의한 사업 강화의 이점이 있다.

다수의 인터넷 벤처기업은 4월 이후 투자를 받지 못해서 6개월 이상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 자금난이 최고에 달하는 9, 10월 위기설, 벤처대란설이 돈다(동아일보, 2000. 7. 12). 인터넷 벤처업체에는 다음과 같은 '벤처피담'들도 떠돈다. "연말에는 각종 인터넷 장비 '맹시장'이 열릴 것이다. 인터넷기업이 연쇄적으로 쓰러짐에 따라 고가 장비가 헐값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매일경제, 2000. 7. 24).¹⁾

대기업의 벤처기업 진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이 분사시킨 벤처기업도 많다. 사내 벤처제도가 도입되고, 경영에 간섭하는 사례도 잦아져 나타나고 있다. 기존 벤처기업에서 하던 업종에 대기업이 직접 진출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금년 4월 이후 코스닥시장의 침체 등으로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자 대기업이 회사를 설립하여 벤처기업이 주도해 왔던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를 들면 벤처기업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지던 정보보안 분야에 대기업이 속속 진출하고 있다. 삼성, LG, 제일제당이 이미 관련 회사를 설립했다. SKC, 신세계 등은 진출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분야에도 진출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벌 대기업의 벤처투자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형태가 벤처에까지 이르는 측면이 있다. 재벌이 벤처캐피털·벤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외에 또 다른 지배체제일 수 있다. 대기업이 자본적·인적으로 벤처기업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재벌 2, 3세가 벤처 투자와 기업을 주도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다(조선일보, 2000. 7. 22).

4) 벤처기업의 제휴 요구

인터넷 벤처기업은 온라인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오프라인과의 조화가 필요하고, 기

1) 벤처대란설. 벤처위기는 벤처 열풍의 반작용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벤처는 원래 고위험, 다산다사(多産多死)를 속성으로 하고 있다. 벤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때 이른 실망으로 바뀌면서 벤처 전체에 대한 총체적 위기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수익모델이 불확실한 일부 인터넷 벤처기업의 자금순환 고리가 코스닥의 침체 등으로 단절되면서 위기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은 건실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크다. 또 벤처는 한파를 거치면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건전한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한국경제, 2000. 7. 31, 2000. 8. 1).

존 사업군과의 제휴가 필요할 때도 많다. 벤처기업은 기술개발 위주로 나아가고, 소비자화 시장의 관리는 대기업에 맡기는 역할 분화도 필요하다. 벤처기업이 미래가치를 대기업에 판매하는 것, 즉 인수합병·제휴·매수 등이 필요하다. 윈-윈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기업에서 영원한 적은 없다. 경쟁사는 가장 좋은 제휴대상이다.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외에도 벤처기업끼리, 동종업종끼리, 이종업종간과의 제휴도 필요하다.

벤처기업과 대기업은 그동안 의식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 벤처기업으로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사업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대기업으로서는 벤처에까지 문어발을 넓히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제휴가 늘고 있다. 위치가 적과 경쟁자에서 동반자나 후원자로 바뀌고 있다. 대표적으로 새롭기술은 삼성과, 드림위즈는 LG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현대와 제휴하고 있다. 특히 든든한 오프라인 회원을 가진 대기업은 인터넷 벤처기업들에겐 매력이 크다.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회원들을 온라인에 올린다면 쉽게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 협력강화가 윈-윈전략이라고 보는 것이다. 일부 벤처기업은 제휴에서 배제될 경우 생존이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강박감을 느끼기도 한다. 수익모델 개발과 독자적인 마케팅·경영능력에서 한계에 부딪히거나 자금부족 때문에, 대기업을 후원자로 확보하지 못하면 버랑에 몰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강박감에 어쩔 수 없이 제휴에 나서기도 한다. 수익모델이 없는 일부 인터넷 벤처기업은 인수합병이 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포털사이트나 e비즈니스를 시작한 오프라인 대기업에 인수되기를 희망한다. 금년 하반기에 벤처기업들의 인수합병은 외국계 기업과 대기업이 주도할 수 있다(한겨레, 2000. 6. 9).

그러나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제휴가 가진 위험도 크다. 안정된 시장기반과 사업확대를 위해 협력이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결국은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이 벤처를 육아 뺄 수 있다.

5) 벤처기업 지주회사

재벌이 아닌 삼보컴퓨터·한글과컴퓨터·다우기술·메디슨·새롭기술 등 성공한 벤처기업도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과 창의성에 기초한 벤처정신을 벗어났는가?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재판인가? 외형적 성장과 투자를 통한 부의 증식이라는 머니 게임이 아닌가? 아니면 인수합병은 벤처기업의 성장모델이자 생리인가? 이들은 벤처는 물고기 떼와 같아 독립적이지만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여 시너지를 위해 뭉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중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대형기업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타 벤처기업에 투자나 인수합병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다. 기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성공의 조건으로 인식한다(윤종언, 2000).

이러한 재벌의 벤처기업 장악 시도나 벤처기업의 지주회사화는 결국 벤처기업이 변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 스톡옵션

벤처기업에 유행하는 스톡옵션 제도는 노동자의 위상에 변화를 초래한다.²⁾ 노동의 변화를 자극하고 있다. 스톡옵션을 받는 경영진과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처지가 다를 수 있다.

긍정적인 점은 스톡옵션의 유혹이 임금 인상 효과보다 크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연봉은 전 직장보다 작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스톡옵션으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능력과 성과에 의한 강한 동기부여 방법이다. 주인의식이 고양된다. 또 IMF 체제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장기적인 안정정보다는 당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풍조에도 맞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97년 한 벤처기업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2000년 초에는 2백여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다. 벤처로 인력 이동이 급증하자 인력 누수를 막기 위해 대기업에서도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나눔의 문화이자 성과급제에 기반한 것으로서 기업문화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매경ECONOMY, 2000d: 16-24; 시사저널, 2000d: 64-69).

부정적인 점은 99년 10월 현재 벤처기업 중 8.3%에서만 실시된다는 것이다. 스톡옵션 시행이 아직 일반화된 것은 아니다. 일면이 과장된 점이 있다. 또 스톡옵션에 노동자들을 목매달게 하는 효과가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노동통제에 길들여지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 주가 하락 후 이 경향은 흔들리고 있다. 주가가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밑돌아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받아봐야 손해이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중 80% 이상이 2000년 7월 기준으로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안정된 보수를 받는 대기업으로 전직하는 자도 생기고 있다. 5월에서 7월까지 임직원의 퇴사로 스톡옵션제를 취소했다고 코스닥에 공시한 기업만도 24개 사에 달한다(한국경제, 2000. 8.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 제도의 도입이 노동자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2)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량의 자사 주식을 미래에 계약 당시의 가격으로 사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주식매입선택권으로서 일종의 주식 보너스이다. 이를 받은 자는 시장거래가격과 자기가 사기로 한 가격(행사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는다. 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제도이다. 1920년대 세계 최초로 시작한 미국에서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고액 연봉을 주기 힘든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 중 70%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재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 대신 스톡그랜트(stock grant)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자사 주식을 직접 무상으로 주는 스톡그랜트는,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주식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한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3. 20 대 80의 사회

벤처 열풍은 세계화로 야기된 20 대 80의 사회를 가속화할 수 있다. 소수의 성공과 다수의 지위하락, 소득 불균형, 계층간 불균형,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아이디어·지식·자본·기술을 가진 자와 단순노동력만을 가진 자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변화에 적응하는 자와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자를 구별한다. 현실로서 다가오고 있는 신경제나 벤처의 변화 물결을 타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신경제가 만드는 새로운 시장질서 속에서는 성공한 자들의 몫은 과거에 비해 훨씬 크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돌아오는 게 거의 없다. 격차가 크다(한준, 2000). 이른바 골드칼라와 기타 노동자로 분할되거나 인력이 양극화될 수 있다.³⁾ 지식기반사회, 디지털 경제에서는 지식 및 인적 자원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골드칼라의 중요성과 비율이 증가한다(서문기·신현암, 2000). 이들은 창의력에 기반한 두뇌 활용을 하고, 자기연마를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고, 철저하게 성과와 보상을 추구한다. 다른 기업에서도 골드칼라의 중요성이 증가하지만 특히 벤처기업에서는 골드칼라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중권열풍은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갖지 못한 자' 간의 격차를 더 크게 할 것이다. 갖지 못한 자의 편인 노동조합은 가입비율이 줄면서 약화될 수 있다. 외국노동자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피용자의 교섭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신경제가 논의되고 있는 미국도 장래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신경제가 기술혁신·정보화뿐만 아니라 감량경영과 외부조달이 맞물리며 진행됨으로써, 피용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임금 인상이 억제되거나 낮아지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만 소수 경영자·전문직 종사자와 다수 노동자간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벤처기업의 고용촉진 효과도 별 의미가 없다. 신경제에 의한 경제성장, 부, 고용창출 효과가 상층과 중상층에 집중됨으로써 불평등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Reich, 2000).

요컨대 디지털 경제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노동자 또는 고임금 지식노동자 대 다수의 실업 또는 부분 실업 상태 노동자로 분화가 심화될 수 있다. 생산성이 고도화되면서 가치는 떨어지는, 보다 적은 노동력으로 보다 많은 것을 생산하는 사회는 그 구성원을 양극화할 수 있다(Rifkin, 1994: 225-245). 디지털화된 생산적 지식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은 노동시간에 기반해서 사회적 부를 분배하는 체제의 종말이 다가옴을 뜻한다. 디지털 경제의 고생산성이 결핍의 종결을 약속하지만, 자본은 새로운 기술적 토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해한다(Davis and Stack, 1997: 135-138). 중권열풍으로 대표되는 벤처 열풍은 이 경향을 강화시킬 수 있다.

3) 골드칼라란 육체노동자인 블루칼라, 사무직노동자인 화이트칼라와 비교하여 두뇌의 사용이 일의 중요 요소인 지식노동자를 지칭한 표현이다.

Ⅲ. 정치지형의 변화

1. 재벌과 중소기업

1) 대기업과 벤처기업

지식정보산업에서는 규모가 크고 의사결정이 느린 재벌·대기업은 효율성이 낮다. 기술과 사회의 변화가 빨라진 시대에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벤처기업들이 발빠르게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춘다. 규모가 작지만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이 소비자 중심의 시장, 기술혁신 가속, 유연생산체제 등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다.

정부에서 99년 8월 말 현재까지 지정받은 벤처기업 4,008개 전체를 조사한 다음의 결과 보고서는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중소기업청, 1999a). 벤처기업은 일반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기술잠재력, 시장성장성 등이 뛰어나므로 21세기 산업발전의 주도세력으로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표 1>을 보면 벤처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33.7%로서 중소기업의 0.3%나 대기업의 2.1%보다 월등히 높다. 종업원 중 기술인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51.0%로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비해 아주 높다. 벤처기업은 기술잠재력에서 월등히 우수하다.

<표 1> 업체별 연구개발비 및 기술인력 비교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개발비/매출액(%)	33.7	0.3	2.1
기술인력(%)	51.0	2.7	0.3

자료: 중소기업청, 1999a.

<표 2>를 보면 벤처기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는 작아지면서 성장률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분야로의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경영자의 자질이나 경영스타일도 일반기업과는 다르고, 종업원보상제도·재무건전성 등에서도 기존기업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 기업형태의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벤처기업의 규모, 매출 및 연구개발비 추이

	99년 1월	99년 10월
종업원 평균	59명	35명
매출증가율	22%	71%
연구개발비/매출액	24%	34%

자료: 중소기업청, 1999a.

2) 재벌 개혁

IMF 사태 이후 우리사회는 재벌책임론과 재벌구조 개혁 요구가 높았다. 이에 벤처 열풍은 자본가 분파간 변화의 차이와 미묘한 갈등을 표출시키고 있다. 자본가 분파간 주도권이 변화할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구조조정에 휩싸인 경제단체들간에는 변화의 단초가 엿보인다. IMF 사태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재벌은 비판의 중심에 놓여 있다. 재벌을 대변하는 전경련은 대우그룹 몰락, 현대사태 발생, 임직원 이탈, 정부의 압박 등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일반기업 중심인 대한상의는 2000년 5월 신임회장 취임 후에 환경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유망한 정보통신업체들과 외국상의들을 끌어들이고 있다(한겨레, 2000. 8. 21). 신임회장은 재벌 중심의 전경련이 아니라 대한상의가 재계의 만형이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전경련과 대한상의 모두 벤처기업과의 연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전자는 후자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위기를 느낀 재벌은 벤처 열풍과 코스닥시장에 대한 비판이나 비판적 보고서를 산하 연구소를 통해 남 먼저 체계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8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현대·삼성·LG·SK 4대 그룹 36개 회사에 전담 조사팀을 투입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이기로 하였다(동아일보, 2000. 8. 16). 이것은 벤처기업 육성 분위기에 편승한 재벌들의 문어발식 벤처 투자가 벤처산업의 발전과 경쟁을 저해하고,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재벌의 구조조정본부도 조사함으로써 재벌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 위한 의도도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며, 재벌을 견제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

2. 정부의 벤처정책

벤처 붐 조성에는 정부의 벤처 육성정책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초기에 벤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벤처 붐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이었다. 벤처 발굴, 투융자 등 직접 지원도 실시했다. 창업보육센터 설치, 창업투자회사 용자, 관련 법과 제도의 제정·개선 등 간접적 인프라 지원도 병행하였다.

1) 육성 배경

단기적으로는 IMF 체제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시도하였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⁴⁾ 미국의 벤처기업 성과에도 자극을 받았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였다.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는 이를 잘 반영한다.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넷 산업과 사용자가 급성장했다.

2) 육성정책

육성정책은 2002년까지 2만 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고, 4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정부는 벤처기업을 '21세기의 꽃'이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중소기업청, 1999d). 97년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에 맞게 98년 12월 개정하였다. 99년 4월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수정·보완하여 발표했다. 2000년 7월에는 이 법의 개정을 예고하였다.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이 법은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로 엔젤투자조합과 스톡옵션 제도를 정비·보완하는 것이다. 둘째는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새로운 벤처문화를 조성·정착하기 위해 한국벤처진흥재단을 설립코자 한다(중소기업청, 2000d).

정부가 마련한 벤처기업 지원제도는 금전적 지원, 인력 지원, 판로·수출 지원, 입지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중소기업청, 2000b). 금전적 지원에는 간접금융 지원, 직접금융 지원, 신용보증 지원, 조세 지원이 있다. 간접금융 지원에는 창업자금, 경영·구조개선자금, 기술개발자금이 있다. 직접금융 지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엔젤투자자, 코스닥을 들 수 있다. 신용보증 지원은 기술력을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발부하여 창업을 돕는 평가특별보증제도,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회사채발행보증 등 여섯 가지가 있다. 조세 지원은 창업시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과 각종 조세특례 제도가 있다.

인력 조달 지원으로는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의 연구·기술·경영 인력을 유치하기 쉽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98년 10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벤처기업에 유리하게 병역특례연구요원 제도를 개정하였다. 그 해 12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교수·연구원을 휴직이나 임직원으로 겸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99년 4월에는 외부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제도를 벤처기업에 유리하게 개선하였다.

4) 벤처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다음 발표문에서 잘 드러난다. 벤처는 산업구조개편의 역동적 주체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그 동안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나름대로 성장을 하였으나, 최근 IMF이후 대기업구조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앞으로 대기업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주체 세력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중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선발하여, 21세기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선도(先導)세력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이를 전산업으로 파급시키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청, 1999d: 6).

판로·수출지원은 광고시장에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한 방송광고지원, 수출입금융·수출자금·수출보증·해외인종획득 등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지 지원으로는 대학 중심의 창업보육센터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꼽을 수 있다. 계획적인 집적지 조성을 위해서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교육훈련시설, 시험생산시설이 집적된 기술연구집단지 단지인 테크노파크 구축사업을 활성화한다. 또 미디어밸리의 첨단정보산업단지, 수도권 앵커형 벤처단지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들 중 대표적인 직접 보호육성 정책으로는 투자·용자·조세감면 위주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 지원이 가진 단점과 그에 대한 비판이 생기고 있다. 정부도 초기 기반 조성은 성공했다고 보고 점차 간접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하려고 한다.⁵⁾

3) 코스닥시장 육성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특히 자금시장인 코스닥시장을 육성하고 제도를 정비하였다. IMF 체제 이후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코스닥시장 육성이 지속되었다. 99년 4월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매입 등에 대해 거래소의 상장기업들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99년 5월 초 공모제도 완화했으며, 세제지원 등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4) 2000년 초의 정책방향

정부는 초기 벤처 붐 조성은 일단 성공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기적인 과열 요인을 제거하면서 기반을 강화시켜 갈 생각이다.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에서 벤처 생태계 전체의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벤처 열기를 확산시키고, 벤처 친화형 환경을 조성하며, 벤처기업의 공급을 확대하고, 창업을 활발히 하며, 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과 퇴출을 원활히 하며, 기존 기업을 벤처기업화하고, 단기 붐 조성에 따른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행태들은 구조조정을 하며, 전국 각지에 벤처 거점을 육성하고⁶⁾,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제들은 정부의

5) 정부의 직접 지원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벤처개념이 선진국과 다르다. 직접 자금지원은 벤처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다. 양적 목표 설정도 바람직하지 않다. 붐에서 제조업 위주의 일반기업은 소외되고 있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중복하여 벤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나친 지원은 기업과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와 거품 논란 등 역효과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의 대안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시장과 제도 정비, 하부구조의 확충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창업과 퇴출의 유연화, 시장의 효율성 지향, 금융인프라 구축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공시제도를 강화해서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 대학 및 연구소,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등 주체들 간 역할정립과 벤처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해야 한다(오영균, 1999).

역할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대신 시장의 민간 부문의 역할이 차츰 증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파악한다(서창수, 2000).

5) 2000년 하반기 정책방향

2000년 들어 주가 하락 후 벤처위기로 확산되자 벤처 육성을 위해 정부가 다시 개입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벤처 육성정책이 코스닥과 인터넷 벤처기업의 거품을 부채질한다는 비판 때문에 시장의 직접 개입을 자제하던 정부가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벤처위기로 자칫 벤처산업의 성장을 크게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벤처 육성을 지속하기 위해서이다. 우선 심리적 불안 요인부터 차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서 잇달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벤처가 위기가 아니라는 진단, 벤처의 경제 기여도 강조, 중소·벤처기업 육성 펀드 발표 등이 잇따르고 있다.⁷⁾ 8월 21일 e비즈니스 국제포럼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세계경제의 중심에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자리잡고 있으며, 지식정보강국 건설을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벤처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벤처 투자자금 약 5천억원, 기업 인수합병 전용기금 1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6) 벤처기업의 분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000년 7월 현재 서울 36.3%, 경기도 21.4%, 인천 8.3%로 서 각각 1, 2, 3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도합 66.0%로서 전체의 2/3 비중이어서 편중이 심하다. 증가율에 있어서도 서울이 전국평균보다 30% 가량 높은 1위이다(중소기업청, 2000a; 2000e).
- 7)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의 상황인식과 대책은 다음과 같다(중소기업청, 2000c).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첫째, 닷컴기업 위기론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이는 수익모델이 없는 일부 인터넷 기업들의 자금순환 고리 단절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닷컴기업의 조정과정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벤처 발전을 위해 겪어야 할 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닷컴기업 위기론을 우리 벤처산업의 위기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이다. 위기론에 편승한 반벤처정서 확산과 이에 따른 벤처투자 위축은 경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인터넷기업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수 및 벤처캐피탈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벤처기업수는 금년들어 월평균 400개 이상씩 증가 추세이다. 창업투자회사는 금년 들어서만 51개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재원도 4조 1,300억원으로 확충되었다. 다섯째, 인터넷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위주로 시장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투자분위기 냉각에 따른 벤처분위기 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반기 대책에 대해서는 첫째, 벤처분위기 유지 및 확산을 위해 8월말에 ‘중소·벤처포럼’ 벤처투어 행사를 추진하고 9월말에는 ‘벤처기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벤처 1세대 기업을 주축으로 한 공익재단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on-off line’ 제휴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벤처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및 엔젤투자조합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벤처기업세계화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전국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0여 곳을 지정하여 벤처산업의 지방화를 적극 추진한다. 넷째, 벤처투자자금 공급확대를 위해 정책자금담보 전환을 추진하여 창투사의 유동성을 증대시킨다. 다섯째, 벤처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반기 사업을 조정하고,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반벤처정서 및 잘못된 인식에 적극 대응해간다.

3. 여당과 야당

벤처 열풍은 여당인 새천년민주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계급적·세대적 정치기반에서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남을 드러내 주었다. 그동안 한국의 정당은 지역 차이를 기본 변수로 존립해 왔다. 이념이나 계급 측면에서는 정당들이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열풍은 양당간 미묘한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중소기업, 정보통신을 위주로 한 벤처기업의 입장에 동조적이다. 99년 5월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스닥 열풍을 부추겼다. 대통령은 금년 1월 24일 '새 천년 벤처인과의 만남' 행사에서 테헤란로의 벤처벨리를 방문해서 격려하였다. 국무총리도 코스닥시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가 주도하고 재벌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하던 모델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재벌 위주 개발독재 모델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재벌은 IMF 체제를 초래하고 정치적 기반세력도 아님을 의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거래소, 전경련 등 대자본, 굴뚝산업의 입장에 우호적이다. 벤처 열풍이 부는 동안 이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전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나라당이 맥을 잇고 있는 과거의 여당이 재벌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펼쳐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벤처기업은 젊은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3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벤처 1세대도 기껏 40대 초반에 지나지 않는다. 30대는 이른바 '386세대'로서 기성세대보다 사회변화에 적극적이다. 이 정치성향이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벤처정신에도 부합한다. 실제로 사회운동 경력을 갖고 있는 많은 386세대가 기존 대기업보다 벤처기업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창업에 참여해 왔다. 벤처기업 주도세력들은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에 가까운 정치적 위치에 있다.

IV. 이데올로기 효과

벤처 열풍은 경제적 요소 못지 않게 이데올로기 효과를 갖고 있다. 효과는 벤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 전자가 마치 전체인 양 확대 포장해서 강조될 때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는 벤처와 신경제에 적응하는 자의 입장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IMF 입장에 동조를 유도하고 있다. 그럴 때 자본의 이데올로기라는 점은 뒤로 숨고 벤처 이데올로기가 앞에 나서 온갖 이상과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벤처는 '착한' 첨단자본주의를 표방함으로써 기존 재벌 중심의 '나쁜' 천민자본주의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한다. 이것은 노동자와 '구경제'에게 불리한 이데올로기 효과가 있다. 첨단자본주의를 표방함

으로써 노동 대중과 천민자본주의를 함께 제어하는 이중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결국 자본의 침범 역할을 맡고 있다. 다음 다섯 가지는 대표적인 이데올로기 효과들이다.

1. 황금신전

열풍은 돈과 성공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백옥인, 2000). 열풍이 돈놀이가 되고, 코스닥 상장과 주가급등으로 때돈을 번 자들의 성공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과거 재벌 1세들이 스타였듯이 성공한 벤처 창업주가 새로운 스타가 되고 있다.⁸⁾

그런데 벤처기업의 대표적 상품인 정보재는 상품으로 되기 어려운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다. 지식의 소비는 집합적이 되기는 쉽지만 사유화는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생산된 지식의 사적 전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본은 정치적 영역을 활용한다(Kenney, 1997: 89). 지식과 정보재를 상품화하려면 특허 인정, 지적 재산권 인정 등 정치적 강제력이 개입해야 한다. 열풍은 지식과 정보재를 상품화함으로써 신자유주의와 관련을 가지며 지식 공유는 힘들게 한다.

벤처는 인터넷을 상업화하는 데도 침범이 되고 있다. 초기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졌던 자유와 공동체의 꿈이 상업적 탐욕으로 대치되고 있다. 인터넷의 탈정치화와 상업화가 증대한다. 인터넷을 통해 돈을 벌려는 것 말고는 진정 새로운 문화는 실종되는 중이다. 인터넷의 개방성과 정보공유가 약화되는 반면, 물질적 가치와 시장승배는 조장된다. 탈물질적 가치가 저평가되고, 능력주의를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실종된다. 이러한 경향은 코스닥의 활황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을 강조한다. 분배는 임금이 아니라 스톡옵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도 얘기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를 투기집단화 하면서 권리의식과 계급의식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투신사 부실, 주식시장의 불안정, 금융위기설 등은 상장·스톡옵션·우리사주가 실질적인 소득상승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성공신화는 벤처기업가의 성공일 뿐 벤처노동자의 성공은 아니다. 명성과 지위는 기업가의 것이다. 벤처기업은 창업주와 그 동료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게 현실이다.

2. 착각 속의 자유

열풍은 자유로움에 관한 허상을 만들고 있다. 벤처기업 근무는 자유 복장, 근무시간 불확

8) 그렇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며 코스닥에 상장을 앓고 내실을 계속 다지는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의 안철수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금융에만 재능을 보인 골드뱅크의 김진호가 스타가 되는 현상은 벤처 스타의 허실을 잘 보여준다.

정, 엄격한 위계서열 붕괴, 개인 아이디어 존중 등을 특징으로 한다. 자유를 통해 성취와 자아실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사실 벤처기업의 창업기에는 탈상품화, 탈중심화, 회사 구성원의 권한강화 등 새로운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성장기에 들어서면 다른 기업들처럼 상업화, 소유주·경영주로의 권한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허상은 저임금·초과노동 등의 노동조건을 성취와 자아실현으로 미화하면서 감내하게 한다. 개인 아이디어의 존중과 자율적·창의적 노동은 구상과 실행의 구분을 극복한 것이며, 참여노동은 생산수단이나 소유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했다고 주장한다.⁹⁾ 하지만 이 점은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것이다. 자본의 일방적인 입장일 뿐이다. 노동자가 자유로움의 허상에 상당히 빠져있음을 나타내는 이데올로기 효과는 벤처기업에 노동조합이 없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¹⁰⁾

벤처기업 노동자는 자본·소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취하는 한 지식노동자의 노동은 자본의 몫으로 전유된다. 대안은 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복원하고, 우리사주·스톡옵션제를 실질적인 경영참여로 이어가는 것이다.

3. 새로움의 신화

벤처 열풍은 신경제, 신지식인, n세대, 첨단 of the 이미지와 더불어 유포된다. 그럼으로써 새 것이 강조되고 옛 것은 바뀌어야 한다는 효과를 갖는다. 이것은 상품과 노동자의 생애주기 단축을 강요한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상품가치에 적합한 노동력 등 부단하게 새로움을 강조한다. 노동유연성 강조도 같은 맥락에 있다.

그렇지만 혁신이 벤처만의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원리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개별 기업에게 끊임 없는 혁신을 요구한다. 특별이윤을 추구해야만 한다. 또 벤처가 반드시 첨단지식과 기술을 가진 업체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의 신화는 벤처와 첨단을 동일시하게 하여 앞서 가는 벤처를 모범과 표준으로 간주하게

-
- 9) 어느 벤처기업가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벤처기업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사라지고 있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낡은 사고이다. 벤처경제에서는 생산직의 굴뚝산업에서 고질적으로 경험하는 집단간 대결이 없다. 만약 노동법이 벤처기업에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모든 벤처기업의 대표자들은 위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에서 유연성과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한겨레, 2000. 4. 25).
- 10) 인터넷 벤처기업인 (주)멀티메이타시스템에서 벤처기업 최초로 2000년 2월 14일 노조가 결성되고, 5월 3일 최초로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5월 6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 전까지는 전국 6,000여 벤처기업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곳은 전혀 없었다. 벤처기업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이다.

한다.

4. 기술숭배

벤처기업에서는 첨단기술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기업이나 노동자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의 노동은 장인적 지식노동이지 소외된 노동이 아니라고 한다. 이 이데올로기는 노동집약적 산업과 소외된 노동현실을 호도하면서 현실을 긍정하고 자본의 입장에 서도록 한다.

첨단기술에 기반한 벤처기업은 전체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벤처가 곧 첨단은 아니다. 첨단이 아닌 벤처가 월등히 많다. 정보통신산업에서 핵심적 아이디어와 기술개발 부분은 2-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노동집약적인 단순업종에 해당된다. 최신판 '노가다'이다. 정보통신업종 중 과반이 콘텐츠업이다. 인터넷 사업에서도 기술기반보다는 대부분 콘텐츠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에 기반한 기업은 드물다. 또 벤처가 정보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와 무관한 벤처도 있다.

열풍은 또 기술숭배, 기술결정론, 기술만능론을 확산시킨다.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과 무반성을 조장할 수 있다. 최근 주가를 높이고 있는 생명공학이 대표적인 예다. 생명공학은 성장가능성이 큰 만큼 위험도 많다. 정보통신산업보다 첨단이라지만 위험성은 더 크다.

5. 지식의 사유화

열풍은 지식을 사유화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지식 일반, 특히 대학과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산학연 협동은 지식의 사유화, 상품화를 유도한다. 이 경향은 대학의 첨단 벤처기업 창업, 대학 실험실 벤처, 창업보육센터, 창업동아리 등을 통해 더욱 촉진된다. 건강한 대학문화 또는 학생운동의 성격을 약화시키면서 개인적 성공만 부추긴다. 대학의 성격 변화는 '아카데미 자본주의'(academy capitalism)의 확산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이영희, 2000).

벤처 열풍은 사적 자본으로 전유될 수 있는 지식만이 의미 있는 지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돈이 되는' 지식만이 살아남는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이익을 위한 지식, 사유화·상품화될 수 없는 지식은 평가절하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든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라는 담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식의 공공적 성격을 훼손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을 민영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V. 맺음말

한국사회 벤처 열풍 현상은 신경제의 가능성에 거품이 낀 것이다. IMF 체제라는 경제상황과 야당의 집권이라는 정치상황은 이를 뒷받침했다.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존재하고 있다.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이를 부채질했다. 많은 사람들이 설립 1년도 안된 기업에서 매출과 이익을 기대했다. 미국은 신경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아니다. 미국을 보고 지레 기대하여 투기적 자본주의가 범람한 것이다.

열풍이 최근에는 변했다. 코스닥의 거품이 꺼지면서 투기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인다. 열풍이 한파로 변화하고 조정국면에 들어섰다. 업계 전체로는 수익모델 부재와 자금압박으로 곤란을 겪고 있지만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고속성장을 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옥석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벤처는 앞으로도 조정을 겪으면서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조정이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대세이다. 벤처 현상은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세계화·신경제·디지털 경제 및 한국경제 구조조정과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것은 자본의 자기 합리화 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벤처는 엄연히 자본이다. 자본의 한 분파이지 자본을 대체한 그 무엇은 아니다.¹¹⁾ 그러므로 노동에 대한 공세를 기본으로 한다. 부차적으로는 천민자본주의에 대한 교정 효과와 자본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우리는 이 열풍이 초래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보면서 대비해 나가야 한다.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벤처기업의 긍정적 효과로는 재벌체제 변화, 기업가정신이 나 창의성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적 효과는 벤처 자체보다 벤처 열풍에 주로 기인한다. 투기바람이 사회의 생산적인 가치체계를 위협하는 게 대표적이다. 70, 80년대 개발과정에서 지가급등으로 인한 졸부 현상처럼 신흥 벤처갑부가 출현하고 있다. 벤처와 코스닥의 위력을 부추기는 언론은 성공신화를 강조하고, '묻지마 투자'가 한탕주의를 양산했다. 부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조성되고 있다(시사저널, 2000b: 58-62). 또 벤처가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하므로 투자자·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전체 차원에서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벤처 문화와 활동이 기존 사회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함으로써 이에 충격을 주고 있다(김우식, 2000). 벤처는 또 이데올로기적 측면

11) 벤처기업의 부상과 벤처 열풍이 생산력의 변화를 반영하는가 아니면 생산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가는 이 점에서 판별된다. 예컨대 정보통신산업에서는 무한복제가 가능함으로써 생산력이 증대된다. 정보통신의 발전은 타부문의 생산비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생산력 변화는 분명하다. 그러나 생산양식, 즉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력 발전이 생산관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열려 있다. 자본·소유 관계는 여전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한 인간관계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

에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신화를 강요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 벤처기업과 기업가가 재벌을 대체한 새 주인공이 되고 있다. 부정부패·정경유착 등 부정적인 이미지의 친민자본주의와 자본가 모습을 대신하여, 창조적이고 혁신적이며 성실한 긍정적 이미지의 첨단자본주의와 자본가상을 창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디지털 경제론, 신경제론과 결합되어 벤처 열풍이 전개됨으로써 자본, 특히 미국 중심의 금융자본주의를 찬미하고 있다.

요컨대 벤처 열풍에는 상반된 성격과 경향과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열풍 뒤에 감추어진 벤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벤처와 벤처 담론과 벤처 열풍을 구별하고, 벤처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우식, 2000 “벤처 열기의 사회학”, 『사회비평』, 여름호.
- 김정호·김원표, 1999 『벤처기업의 성공과 버블』,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21.org>.
- 동아일보, 2000 『동아일보』, 7월 12일자, 8월 16일자.
- 매경ECONOMY, 2000a “한국벤처 해외진출 허실,” 5월 31일자, 2000b “벤처 축제 벌써 파장인가,” 5월 10일자, 2000c “벤처 기류: 창투사 신르네상스,” 3월 1일자, 2000d “스톡옵션 확산, 아직은 ‘그들만의 잔치,’” 1월 12일자.
- 매일경제, 2000 『매일경제』, 7월 24일자.
- 백옥인, 2000 “한국의 정보화 현실과 벤처열풍,”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사회 벤처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http://cast.jinbo.net/video/special_cast.html.
- 서문기·신현암, 2000 『부상하는 골드칼라와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21.org>.
- 서창수, 2000 『벤처생태계와 정부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21.org>.
- 시사저널, 2000a “만취한 ‘돈’스닥...코스닥이 위험하다,” 3월 30일자, 2000b “광란인가, 혁명인가, ‘붕붕 증후군,’” 3월 9일자, 2000c “‘실험실 벤처’의 힘찬 용틀임,” 2월 3일자, 2000d “억대 연봉보다 달콤한 스톡옵션의 유혹,” 2월 3일자.
- 오영균, 1999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경제』, 7월호, 대한경제연구원.
- 윤종언, 2000 『집적지별 벤처생태계 현황』,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21.org>.
- 이상철, 1999 “한국사회의 경제위기와 대안적 발전방향,” 『사회발전연구』 15,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 이영희, 2000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사회 벤처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내용, http://cast.jinbo.net/video/special_cast.html.
- 임용기, 2000 “오늘 우리에게 주식시장은 무엇인가?,” 『사회비평』, 여름호.

조선일보, 2000 『조선일보』, 7월 22일자.

중소기업청, 2000a “벤처기업통계,” http://venture.smba.go.kr/info/in_stat.html., 2000b “벤처기업 지원제도,” http://venture.smba.go.kr/support/sp_index.html., 2000c “최근의 벤처동향 및 대책”, 2000d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2000e “벤처기업 현황”, 1999a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 1999b “벤처캐피탈시장의 성장 가속화”, 1999c “엔젤투자가 실태조사 결과분석”, 1999d “벤처기업육성시책의 올바른 이해.”

한겨레, 2000 『한겨레신문』, 4월 25일자, 6월 9일자, 8월 21일자.

한국경제, 2000 『한국경제』, 7월 12일자, 7월 31일자, 8월 1일자, 8월 2일자.

한 준, 2000 “정보기술과 신경제(사회학),” 한국사회학회 춘계특별심포지움 발표논문.

Davis, Jim and Michael Stack, 1997 “The Digital Advantage,” in Jim Davis, Thomas Hirschl & Michael Stack(eds.), *Cutting Edge: Technology, Information, Capitalism and Social Revolution*, Verso.

Kenney, Martin, 1997 “Value Cre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The Rise of the Knowledge Worker,” in Jim Davis, Thomas Hirschl & Michael Stack(eds.), *Cutting Edge: Technology, Information, Capitalism and Social Revolution*, Verso.

Reich, Robert, 2000 “It’s a Hot Economy, but Not for Janitors, Others,” *L.A. Times*, April 12.

Rifkin, Jeremy, 1994 *The End of Work: 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r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민음사, 1996.